

『형태론』 26권 1호 (2024년, 봄철), 18-40.

##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조사의 단어성

### 최형용

본고는 최형용(2021, 2022)에서 제시된 논의에 근거하여 유형론적 측면에서 설정된 판별 기준에 따라 한국어 조사들의 단어성을 측정해 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지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어의 조사에 대해서는 통사적 접사나 접어로 간주하려는 견해도 있었다. 이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국어의 조사가 음운론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있지만 통사론적으로는 단어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한국어 조사의 단어성 정도에 대한 의문을 자아내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형용(2022)에서 제시한 접사와 단어를 판별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어 조사 44개를 대상으로 5점 척도에 따라 측정한 결과 평균 점수가 3.78점으로 단어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사별로는 가장 높은 점수가 4.18점이고 가장 낮은 점수가 3.45점이므로 어느 것도 단어보다 접사에 가까운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사별로는, 학교 문법 체계의 조사 분류 체계를 참고하면 격 조사가 접속 조사나 보조사에 비해 평균 점수가 높기는 하지만 이는 매우 근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좋을 만한 수준이다. 판별 기준별로는, 다시 이를 의미론적 기준, 통사론적 기준, 형태론적 기준, 음운론적 기준으로 크게 묶으면 이 순서대로 점수가 낮아진다. 이때 음운론적 기준에서만 접사성이 단어성보다 높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한국어의 조사가 가지는 의존적 속성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는 한국어의 조사를 유형론적 측면에서도 단어로 간주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보아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 어휘: 조사, 단어성, 통사적 접사, 접어, 유형론적 판별 기준, 접사성

### 1. 머리말

본고는 최형용(2021, 2022)에서 제시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조사들의 단어성을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형용(2021)에서는 유형론적 관점에서 한국어의 조사와 어미를 접어(clitics)로 간주할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본 바 있다. 한국어의 조사와 어미는 음운론적으로는 선행 요소에 의존적이라는 점에서 접사(affix)에

가깝지만 통사론적 측면에서는 구(phrase)에 결합한다는 점에서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기존 논의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한국어의 조사와 어미를 통사적 접사(syntactic affix)로 간주하는 견해도 있었고 더 나아가 접어로 간주하려는 견해도 최근 제시된 바 있다.<sup>1)</sup> 그러나 최형용(2021)에서는 접어의 특성, 접어의 유형, 접어의 판별 기준으로 나누어 검토한 결과 한국어의 조사와 어미를 접어라는 ‘범주’로 간주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 바 있다. 그동안 제시된 접어의 유형에 한국어의 조사와 어미를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을 찾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Spencer&Luis(2012: 32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접어 자체가 범주로서의 결격 사유가 심각하기 때문이다.<sup>2)</sup>

한편 최형용(2022)에서는 유형론적 관점에서 한국어의 조사와 어미가 ‘굴절 접사’와 차이가 나는 점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Plungian(2001)의 논의에 초점을 맞추었다. Plungian(2001)에서는 유형론적 관점에서 한국어의 조사와 어미와 같은 교착적 요소를 통사적인 자율성(syntactic autonomy)과 문법적인 자율성(grammatical autonomy)을 가지는 요소로 간주한 바 있는데 이는 교착을 나타내는 요소가 접사와 단어 사이에서 정도성을 가지는 요소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도성을 포착하기 위해 최형용(2022)에서는 유형론적 관점에서 Zwicky&Pullum(1983), Zwicky(1985)에서 각각 제시된 접어와 접사의 판별 기준, 접어와 단어의 판별 기준에 주목하여 단어성(wordhood) 혹은 접사성(affixhood)을 판단할 수 있는 판별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임의로 한국어의 조사 2개, 어미 2개에 이러한 판별 기준을 시범적으로 적용한 바 있다. 그 결과는 한국어의 조사와 어미가 접사성보다 단어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본고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먼저 한국어의 조사들에 최형용(2022)의 판별 기준을 적용하여 단어성 혹은 접사성(이하 ‘단어성’으로 나타내기로 한다.)을 본격적으로 측정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한국어의 어미는 물론 한국어의 조사에 대한 단어성을 측정한 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의는 유형론적 관점에서

1) 통사적 접사는 무엇보다 ‘통사적’과 ‘접사’의 양립 불가능성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접어에 기댄 것은 접어가 통사적이라고 하더라도 ‘접사’보다는 ‘단어’에 가깝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 보아 좋을 것이다.

2) 그 과정에서 일본어의 첨사(particle)에 대해 이를 접어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Vance(1993)의 논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Vance(1993)은 Zwicky&Pullum(1983)과 Zwicky(1985)의 판별 기준을 일본어의 첨사에 적용한 논의인데 그 결과는 일본어의 첨사를 접어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이를 접어로 간주했던 Vance(1987)의 결과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었다. 일본어의 첨사는 한국어의 조사와 흡사한 것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 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설정된 판별 기준에 따라 한국어 조사들이 어느 정도 단어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단어성 판단을 위한 판별 기준

최형용(2022: 48)에서는 유형론적 관점에서 한국어 조사와 어미의 단어성을 판단하기 위한 판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한 바 있다.

- (1) 가. 음운론적으로 자립할 수 있으면 단어, 그렇지 못하면 접사의 속성을 갖는다.
- 나. 선행 요소와의 결합에서 이형태를 가지면 접사, 그렇지 않으면 단어의 속성을 갖는다.
- 다. 선행 요소의 이형태를 유발하면 접사, 그렇지 않으면 단어의 속성을 갖는다.
- 라. 선행 요소에 대해 높은 정도의 선택성을 가지면 접사, 그렇지 못하면 단어의 속성을 갖는다.
- 마. 선행 요소와의 결합에서 임의적 빈칸을 보이면 접사, 그렇지 않으면 단어의 속성을 갖는다.
- 바. 인접하는 요소와의 결합 순서가 고정적이면 접사, 그렇지 않으면 단어의 속성을 갖는다.
- 사. 통사적 규칙의 영향을 받으면 단어, 그렇지 못하면 접사의 속성을 갖는다.
- 아. 구와 결합할 수 있으면 단어, 그렇지 못하면 접사의 속성을 갖는다.
- 자. ‘X+Y’ 구성에서 ‘X’ 혹은 ‘Y’가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under identity) 비실현될 수 있다면 ‘X’와 ‘Y’는 단어이고 그렇지 않으면 접사의 속성을 갖는다.
- 차. ‘X+Y’ 구성에서 ‘X’ 혹은 ‘Y’가 분포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면 ‘X’와 ‘Y’는 단어의 속성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접사의 속성을 갖는다.
- 카. 선행 요소와의 결합에서 의미론적 특수성을 보이면 접사, 그렇지 않으면 단어의 속성을 갖는다.

(1)의 판별 기준들은 Zwicky&Pullum(1983), Zwicky(1985)에서 제시된 접어와 접사 사이의 판별 기준 가운데 일차적으로 한국어의 특성을 포착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것들은 삭제하고 이론적 지향성을 반영하는 용어들은 다듬은 것이며 여기에

Plungian(2001)의 논의를 참고한 결과이다.<sup>3)</sup>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이분적인 (1가)와는 달리 정도성을 가지는 것들도 있다.<sup>4)</sup> 따라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최형용(2022: 50)에서는 5점 리커트 척도를 마련한 바 있는데 이를 역시 단어성에 초점을 두어 수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단어성 점수

접사				단어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점	2점	3점	4점	5점

따라서 가령 (1가)의 판별 기준에 따라서는 1점과 5점 가운데 하나만 부여되지만 이론적으로 (1라)와 같은 경우에는 정도성에 따라 2점이나 4점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3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보다 큰 점수가 나오면 단어에, 작은 점수가 나오면 접사에 가깝다고 판정할 수 있다. 최형용(2022)에서는 조사 가운데 주격 조사 ‘이’와 보조사 ‘만’을 대상으로 (1)의 기준을 <표 1>을 고려하여 적용한 결과 각각 3.82의 평균 점수를 도출한 바 있다.<sup>5)</sup>

이제 판별 기준 (1)과, 5점 척도 <표 1>을 바탕으로 하되 한국어의 조사의 범위를 양적으로 확대하여 단어성의 정도를 측정하고 그 특성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3) 따라서 이들 기준의 도출 과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최형용(2022: 38-48)을 참고하기 바란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1) 가운데 (1가, 나, 다)는 단어성 판단을 위한 음운론적 기준에 해당하고 (1라, 마, 바)는 형태론적 기준에 해당한다. (1사, 아, 자, 차)는 단어성 판단을 위한 통사론적 기준에 해당하며 마지막 (1카)는 의미론적 기준에 해당한다.

4)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한국어 조사의 경우 (1바), (1자), (1차)가 이에 해당한다.

5) 어미로는 선어말 어미 ‘-시-’와 연결 어미 ‘-니’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1)과 <표 1>의 적용 결과는 ‘-시-’는 3.09점, ‘-니’는 3.45점이었다. 이들 점수는 조사의 경우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3점을 넘긴다는 점에서 어미를 접사보다는 단어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조사를 대상으로 하므로 어미에 대한 것, 조사와 어미의 점수에 따른 단어성의 비교에 대해서는 다시 후고를 기다리기로 한다.

### 3. 한국어 조사의 단어성

#### 3.1. 대상 조사의 범위

본고에서는 한국어 조사의 단어성을 살펴보기 위한 하위 분류로 격 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의 체계를 취하기로 한다. 이는 남기심 외(2019)의 체계로 학교 문법과 동일하다. 따라서 격 조사도 주격 조사, 서술격 조사, 목적격 조사, 보격 조사, 관형격 조사, 부사격 조사, 호격 조사로 나누기로 한다. 목록은 가급적 대표성을 띠도록 김한샘(2005), 국립국어원(2005)를 참고하여 정하도록 하되 본고의 논의에 있어 특별한 도움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으로 부터’와 같은 복합 조사는 대상으로 삼지 않고 단일 조사만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본고에서 유형론적 관점에서 한국어 조사의 단어성을 살펴보기 위한 대상 조사를 목록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단어성 판단을 위한 한국어 조사의 목록

대부류	소부류	목록(이형태 분포 정보)	개수
격 조사	주격 조사	이(자음 뒤)/가(모음 뒤)	3개
		께서	
		에서	
	서술격 조사	이다(자음 뒤)/다(모음 뒤, 수의적)	1개
	목적격 조사	을(자음 뒤)/를(모음 뒤)	1개
	보격 조사	이(자음 뒤)/가(모음 뒤)	1개
	관형격 조사	의	1개
	부사격 조사	에	12개
		에서	
		으로(‘ㄱ’을 제외한 자음 뒤)/로(‘ㄱ’ 받침 혹은 모음 뒤)	
		와(모음 뒤)/과(자음 뒤)	
		하고	
		이랑(자음 뒤)/랑(모음 뒤)	
		보다	
		에게	
		한테	
		처럼	
		라(고)(모음 뒤)/이라(고)(자음 뒤)	
		고	

	호격 조사	아(자음 뒤)/야(모음 뒤)	1개
소계			20개
접속 조사		와(모음 뒤)/과(자음 뒤)	5개
		하고	
		이나(자음 뒤)/나(모음 뒤)	
		이랑(자음 뒤)/랑(모음 뒤)	
		이며(자음 뒤)/며(모음 뒤)	
보조사		은(자음 뒤)/는(모음 뒤)	19개
		도	
		만	
		까지	
		부터	
		마저	
		조차	
		이나(자음 뒤)/나(모음 뒤)	
		이나마(자음 뒤)/나마(모음 뒤)	
		이라도(자음 뒤)/라도(모음 뒤)	
		이야(자음 뒤)/야(모음 뒤)	
		이야말로(자음 뒤)/야말로(모음 뒤)	
		이든지(자음 뒤)/든지(모음 뒤)	
		요	
		들	
		같이	
		대로	
		뿐	
		만큼	
총계			44개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형론적 관점에서 한국어 조사의 단어성을 살펴보기 위해 선정한 조사는 모두 44개에 해당한다.<sup>6)</sup> 대부류를 기준으로 할 때 격 조사가 20개로 가장 많고 보조사가 19개, 접속 조사는 5개이다. 소부류는 격 조사만 대상으로 하였는데 격 조사 가운데는 부사격 조사가 12개로 가장 많다.

한편 <표 2>의 목록은 ‘형태’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능’을 중심으로 한

6) <표 2>의 목록은 이형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은 하나로 간주하였다. 만약 이형태에 놓여 있는 것들도 별개로 다룬다면 이형태를 가지는 것들이 20개에 해당하므로 총 목록은 모두 64개로 늘어난다. 그러나 이형태는 동일한 점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선행 요소의 이형태 유발과 관련 되므로 하나로 묶어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것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같은 형태라도 기능에 따라 단어성이 다를 수 있음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형태가 서로 다른 조사 부류에 포함된 것들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서 다시 후술하기로 한다.

### 3.2. 대상 조사의 단어성

이제 앞서 제시한 (1)의 판별 기준과 <표 1>의 단어성 점수에 따라 <표 2>에 제시된 한국어 조사들의 단어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정리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한국어 조사의 단어성 점수

판별 기준 조사 목록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평균 점수 (조사별)
이/가(주격 조사)	1	1	5	5	5	2	5	5	4	4	5	3.82
께서	1	5	5	5	5	1	5	5	2	4	5	3.91
에서(주격 조사)	1	5	5	5	5	1	5	5	1	4	5	3.82
이다/다	1	1	5	5	5	2	5	5	4	4	5	3.82
을/를	1	1	5	5	5	2	5	5	4	4	5	3.82
이/가(보격 조사)	1	1	5	5	5	2	5	5	4	4	5	3.82
의	1	5	5	5	5	2	5	5	4	4	5	4.18
에	1	5	5	5	5	2	5	5	2	4	5	4.00
에서(부사격 조사)	1	5	5	5	5	2	5	5	2	4	5	4.00
으로/로	1	1	5	5	5	2	5	5	2	4	5	3.64
와/과(부사격 조사)	1	1	5	5	5	1	5	5	2	4	5	3.55
하고(부사격 조사)	1	5	5	5	5	1	5	5	2	4	5	3.91
이랑/랑(부사격 조사)	1	1	5	5	5	1	5	5	2	4	5	3.55
보다	1	1	5	5	5	1	5	5	1	4	5	3.45
에게	1	5	5	5	5	2	5	5	2	4	5	4.00
한테	1	5	5	5	5	2	5	5	2	4	5	4.00
처럼	1	5	5	5	5	1	5	5	1	4	5	3.82
이라(고)/라(고)	1	1	5	5	5	2	5	5	1	4	5	3.55
고	1	5	5	5	5	1	5	5	4	4	5	4.09
아/야	1	1	5	5	5	1	5	5	2	4	5	3.55
와/과(접속 조사)	1	1	5	5	5	1	5	5	4	4	5	3.73
하고(접속 조사)	1	5	5	5	5	1	5	5	4	4	5	4.09
이나/나(접속 조사)	1	1	5	5	5	1	5	5	1	4	5	3.45
이랑/랑(접속 조사)	1	1	5	5	5	1	5	5	4	4	5	3.73
이며/며	1	1	5	5	5	1	5	5	4	4	5	3.73

은/는	1	1	5	5	5	2	5	5	1	5	5	3.64
도	1	1	5	5	5	2	5	5	1	5	5	3.64
만	1	5	1	5	5	4	5	5	1	5	5	3.82
까지	1	5	5	5	5	4	5	5	1	5	5	4.18
부터	1	1	5	5	5	4	5	5	1	5	5	3.82
마저	1	5	1	5	5	2	5	5	1	5	5	3.64
조차	1	1	5	5	5	2	5	5	1	5	5	3.64
이나/나(보조사)	1	1	5	5	5	2	5	5	1	5	5	3.64
이나마/나마	1	1	5	5	5	2	5	5	1	5	5	3.64
이라도/라도	1	1	5	5	5	2	5	5	1	5	5	3.64
이야/야	1	1	5	5	5	2	5	5	1	5	5	3.64
이야말로/야말로	1	1	5	5	5	2	5	5	1	5	5	3.64
이든지/든지	1	1	5	5	5	2	5	5	1	5	5	3.64
요	1	5	5	5	5	4	5	5	1	5	5	4.18
들	1	1	5	5	5	2	5	5	1	5	5	3.64
같이	1	1	5	5	5	4	5	5	1	5	5	3.82
대로	1	1	5	5	5	2	5	5	1	5	5	3.64
뿐	1	5	5	5	5	2	5	5	1	5	5	4.00
만큼	1	5	1	5	5	4	5	5	1	5	5	3.82
평균 점수(기준별)	1.00	2.55	4.73	5.00	5.00	1.95	5.00	5.00	1.91	4.43	5.00	3.78

먼저 음운론적 기준인 (1가, 나, 다)에 대해 대상 조사의 점수 부여와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1가)와 관련하여서는 대상 조사 가운데 음운론적 자립성을 가지는 것은 없다. 따라서 모두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1나)와 관련하여서는 이형태가 음성(phonemic shape)의 변화와 관련되고 이러한 음상의 변화가 ‘이/가’처럼 표기로도 구분되는 것은 물론 표기로는 구분되지 않는 것도 고려에 넣을 필요가 있다. 가령 ‘도’는 이형태가 표기로는 구분되지 않지만 환경에 따라 [또]도 이형태로 가지므로 이러한 것들은 모두 1점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에는 ‘도’를 포함하여 ‘보다, 부터, 조차, 들, 같이, 대로’가 속한다.<sup>7)</sup> 나머지는 모두 5점을 받게 된다. (1다)와 관련하여서는 ‘책만[챙만]’처럼 비음화에 따라 선행 요소 이형태를 유발하는 ‘만, 마저, 만큼’의 경우가 1점을 부여받게 된다. 역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5점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음운론적 기준인 (1가, 나, 다)와 관련된 득점은 모두 1점 아니면 5점에만

7) ‘와/과’의 경우는 다른 이형태와는 달리 자음으로 끝나는 말 다음에 ‘과’가 결합하므로 ‘도’와 비슷한 구석이 있다. 그러나 이미 ‘와’를 이형태로 더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도’보다 이형태가 하나 더 있다는 차이가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판별 기준 (1나)는 이형태가 있거나 하면 1점에 해당하므로 점수에서는 차이가 없다.



해당되므로 이분적이라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형태론적 기준인 (1라, 마, 바)에 대해 대상 조사의 점수 부여와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1라)와 관련하여서는 대상 조사들이 선행 요소에 특정한 범주적 선택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두 5점을 부여 받게 된다.<sup>8)</sup> (1마)와 관련하여서는 대상 조사들이 선행 요소와의 결합에서 임의적인 빈칸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역시 모두 5점을 부여 받게 된다.<sup>9)</sup>

한편 (1바)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언급이 필요하다. 우선 선행 요소와의 결합에서 다른 요소가 끼어들 수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선행 요소와의 결합에서 다른 요소가 끼어들 수 없다면 이는 접사와 마찬가지로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학생이’는 ‘학생만이’와 같이 ‘만’이 ‘책’과 ‘이’ 사이에 끼어들 수 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의 경우는 ‘선생님께서만’은 가능하지만 ‘선생님만께서’는 불가능하다. 즉 ‘께서’는 선행 요소와의 결합에서 다른 요소가 끼어들 수 없으므로 그 순서가 고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가 ‘만’의 끼어들음을 허용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또 다른 요소들이 자유롭게 끼어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께서’가 1점이라면 ‘이’는 2점 정도이지 4점이나 5점을 받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만’은 ‘학생만이’뿐만 아니라 ‘돌로만’을 ‘돌만으로’ 등으로 그 순서가 ‘이’보다는 더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생님만께서’는 불가능하므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기 때문에 5점을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는 곧 (1바)와 관련해서는 ‘께서’와 같은 1점짜리, ‘이’와 같은 2점짜리, ‘만’과 같은 4점짜리가 존재

8) 최형용(2022: 4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의 파생 접사는 유형론적 측면에서 볼 때 선행 요소에 대해 범주적 선택성이 오히려 느슨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다양한 범주에 결합할 수 있는 접미사는 물론 접두사의 경우도 두 개 이상의 품사 범주와 결합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격 조사보다는 보조사의 경우 부사뿐만 아니라 어미에도 결합할 수 있으므로 범주적 선택성이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라)에서 문제 삼고 있는 이들 범주적 선택성은 조사 상호 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접사에 대해 상대적인 것이므로 격 조사와 같은 경우만으로도 접사에 비하면 범주적 선택성이 충분히 넓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격 조사와 보조사 사이의 범주적 선택성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가령 조사에 따라 ‘4’점, ‘5’점과 같이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대신 이러한 범주적 선택성은 후술하는 (1차)에서 ‘분포’의 관점에서 반영하기로 한다.

9) 임의적 빈칸은 파생 접사에서 매우 흔한 현상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선행 요소와의 결합이 제약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따라서 ‘불굴의’와 같이 조사가 아니라 명사 때문에 빈칸이 나타나는 이른바 불완전한 패러다임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전에서도 ‘불굴의’와 같은 경우가 가지는 패러다임의 빈칸을 표제어 ‘불굴’에서 처리하고 ‘의’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를 임의적 빈칸으로 간주하게 되면 ‘불굴의’와 같은 경우만 따지더라도 ‘의’를 제외한 모든 조사가 임의적 빈칸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0)</sup> 4점짜리는 보조사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그만큼 문법적 관계보다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보조사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접속 조사는 모두 1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접속 조사가 그 특성상 문법적 관계나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것보다 단순한 ‘접속’의 역할에 치중하여 다른 조사의 끼어듦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다른 조사를 후행시키는 경우도 자연스럽지 않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sup>11)</sup>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형태론적 기준 가운데는 한국어 조사와 관련하여 이분적인 것과 정도성이 있는 것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한다. (1라, 마)는 이론적으로는 정도성이 가능하지만 한국어 조사와 관련되어서는 이분적으로 1점과 5점만 존재한다. 반면 (1바)는 한국어 조사와 관련하여서도 정도성이 반영되어 2점과 4점도 존재하며 다만 1점은 있지만 반대로 5점까지는 부여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1사, 아, 자, 차)는 점수 부여와 관련해 대상 조사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통사론적 기준에 해당한다. (1사)와 관련해서는 대상 조사들이 모두 통사적인 단위에 해당하므로 통사적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예외 없이 5점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1아)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는데 대상 조사들이 모두 구와 결합할 수 있으므로 역시 모두 5점을 부여받게 된다.

(1자)와 관련해서는 (1바)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언급이 필요하다. 우선 문법격 조사인 주격 조사, 관형격 조사, 목적격 조사는 경우에 따라 그 정체성을 유지한 채 비실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정도성이 관여된다. ‘이/가’, ‘을/를’, ‘의’는 전형적인 문법격 조사에 해당하여 비실현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어휘적 자립 단어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4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주격 조사라도 ‘께서’, ‘에서’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께서’는 “아버지(께서) 오신다.”와 같은 자동사 구문에서는 비실현이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아버지께서 신문을 보신다.”와 같이 타동사 구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실현이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2점 정도로 점수를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10) 이는 조사 결합 양상이 조사에 따라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이다. 최형용(2016: 220-22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의 상호 결합 양상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은, 첫째, 의미격 조사와 문법격 조사가 결합할 경우에는 문법격 조사가 후행하고 둘째, 의미격 조사와 의미격 조사는 서로 결합할 수 있지만 문법격 조사와 문법격 조사는 서로 결합하지 않으며 셋째, 의미격 조사가 보조사와 결합할 때는 의미격 조사가 선행하며 ‘만’이나 ‘만큼’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문법격 조사는 보조사와 결합하기 어렵고 넷째, 보조사와 보조사는 서로 양립 가능한 의미를 가질 때 서로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1) 따라서 (1바)와 관련해서는 격 조사와 접속 조사가 동일한 형태를 가지는 경우에 점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면 ‘에서’는 주격 조사로 쓰일 경우 비실현이 어색하거나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1점을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에서’가 비실현되면 [단체]의 의미가 드러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미격 조사인 부사격 조사는 원칙적으로 그 정체성을 유지한 채 비실현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여기에도 정도성이 존재한다. 부사격 조사 가운데 ‘에’는 “학교(에) 가다.”처럼 비실현이 가능한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비실현이 ‘이/가’, ‘을/를’, ‘의’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2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으로/로’의 경우도 “학교(로) 가다.”와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2점을 줄 수 있다. ‘에게’, ‘한테’도 마찬가지로 측면에서 2점을 부여하기로 한다. 부사격 조사 가운데 ‘에서’도 “다음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오.”처럼 비실현이 가능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유로운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2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sup>12)</sup> “얼음(과) 같이 차다.”의 ‘와/과’, “너(하고) 닮았다.”의 ‘하고’, “너(랑) 닮았다.”의 ‘랑/이랑’, “철수(야), 이리 와.”의 ‘아/야’도 마찬가지이다.<sup>13)</sup> 그러나 부사격 조사로 처리한 것 가운데 ‘보다’, ‘처럼’, ‘이라(고)/라(고)’는 비실현이 불가능하므로 1점을 주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예외적으로 간접 인용의 ‘고’는 “아직도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느냐?”처럼 비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4점을 주어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들에 대해 보조사는 그 정체성을 유지한 채 비실현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모두 1점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보조사

12) 이에 따라 주격 조사로 쓰이는 ‘에서’와 부사격 조사로 쓰이는 ‘에서’가 서로 다른 점수를 받는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부사격 조사로도 쓰이고 접속 조사로도 쓰이는 ‘와/과’, ‘하고’ 등이나 접속 조사로도 쓰이고 보조사로도 쓰이는 ‘이나/나’ 등도 마찬가지이다.

13) 호격 조사 ‘아/야’의 비실현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도 가능하다. 가령 이익섭(1994: 209)에서는 호칭어의 높임 등급에 대해 ‘과장님-박 과장님-박영호 씨-영호 씨-영호 형-박 과장-박 씨-박 형-박 군-박영호 군-영호 군-박영호-영호-영호야’의 14개 등급을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영호’와 ‘영호야’의 높임 등급이 다르므로 호격 조사 ‘아/야’는 단순히 비실현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두껍아’의 경우처럼 형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 비실현에 제약이 있다는 점도 고려에 넣어 본고에서는 우선 2점을 부여하였으나 오히려 문법격 조사들보다 늘 별 차이 없이 비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5점까지도 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실현과 비실현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르다고 본다면 보조사와 마찬가지로 1점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사실 문법격 조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견(異見)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견해에 따라 점수 부여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논의를 멈추고 조사의 실현과 비실현, 여기에서 더 나아가 생략과의 차이와 관련된 것 등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기로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고에서는 비실현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만약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면 지금보다 점수가 더 올라 조사의 단어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조사의 비실현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어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는 그것이 없어도 문장 성립이 가능하여 비실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없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 그 의미 즉 정체성은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접사와 마찬가지로 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접속 조사의 경우도 두 가지로 경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접속 조사 ‘와/과’, ‘하고’, ‘이랑/랑’, ‘이며/며’와 같은 단순 접속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비실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4점을 주어도 좋다고 생각한다.<sup>14)</sup> 그러나 선택 접속을 나타내는 ‘이나/나’의 경우는 비실현 될 경우 [선택]의 의미가 사라져 비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1점을 주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1차)와 관련해서는 격 조사와 접속 조사에 대해 보조사의 분포적 자유성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주로 체언과 결합하는 격 조사나 접속 조사에 비해 보조사는 부사나 어미 결합형에도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격 조사와 접속 조사는 4점, 보조사는 5점을 부여하여 이를 구분하기로 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통사론적 기준 가운데도 이분적인 것과 정도성이 있는 것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한다. (1사, 아)는, 조사와 관련해서는 모두 5점을 주었으므로 이분적인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sup>15)</sup>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여부’의 문제이므로 그 본질은 이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1자, 차)는 공통적으로 4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자)는 1점과 2점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도성을 여실히 드러내 주지만 (1차)는 4점과 5점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정도성이 덜하다는 특징이 있다.<sup>16)</sup>

마지막으로 (1카)는 점수 부여와 관련해 대상 조사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의미론적 기준에 해당한다. (1카)와 관련해서 대상 조사들이 선행 요소와의 결합에 있어 접사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의미론적 특수성을 보여 주는 것은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모두 5점을 줄 수 있다.<sup>17)</sup> 이 역시 모두 5점을 부여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 성격은

14) 이와 관련하여 가령 접속 조사 ‘과’에 대해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이때 ‘과’는 경우에 따라 생략이 가능하며, 생략된 자리에는 침표를 찍는다.”와 같이 ‘생략’과 관련된 뜻풀이를 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15) 이는 한국어의 어미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16) 사실 격 조사나 접속 조사도 상대적으로 보조사보다는 분포적 자유성이 덜 하지만 그래도 접사와 비교해서는 분포적 자유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중시하여 (1라)처럼 모두 5점을 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고 하여도 그 성격이 이분적이라기보다는 정도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7) 이 역시 상대적이라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령 전술한 인용격 조사 ‘아/야’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손아랫사람이나 짐승 따위를 부를 때 쓰는 격 조사’로 뜻풀

이분적이라기보다는 정도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3.3. 결과 분석

이제 <표 3>의 결과를, 대상 조사를 중심으로 한 것과 판별 기준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나누어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 3.3.1. 조사 중심 결과 분석

먼저 <표 3>에서 제시한 대상 조사 44개의 단어성 점수를<sup>18)</sup> 순위가 높은 것부터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한국어 조사의 순위별 단어성 점수

대부류	소부류	목록	단어성 점수	순위
보조사		까지	4.18	1
격 조사	관형격 조사	의	4.18	1
보조사		요	4.18	1
접속 조사		하고(접속 조사)	4.09	4
격 조사	부사격 조사	고	4.09	4
보조사		뿐	4.00	6
격 조사	부사격 조사	에서(부사격 조사)	4.00	6
격 조사	부사격 조사	에	4.00	6
격 조사	부사격 조사	에게	4.00	6
격 조사	부사격 조사	한테	4.00	6
격 조사	부사격 조사	하고(부사격 조사)	3.91	11
격 조사	주격 조사	께서	3.91	11
격 조사	보격 조사	이/가(보격 조사)	3.82	13
격 조사	주격 조사	이/가(주격 조사)	3.82	13
보조사		부터	3.82	13
보조사		같이	3.82	13

이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때 ‘손아랫사람’이나 ‘짐승’이 결합과 관련된 의미론적 제약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은, 비유하자면 ‘손아랫사람’이나 ‘짐승’ 가운데도 결합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사의 경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론적 특수성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았을 뿐이다. 이 점 주격 조사로 사용되는 ‘에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18) <표 3>의 ‘평균 점수’는 판별 기준별로 조사들이 득점한 단어성 점수를 평균으로 낸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서는 이 ‘평균 점수’를 편의상 ‘단어성 점수’로 칭하기로 한다.

격 조사	주격 조사	예서(주격 조사)	3.82	13
보조사		만큼	3.82	13
보조사		만	3.82	13
격 조사	부사격 조사	처럼	3.82	13
격 조사	목적격 조사	을/를	3.82	13
격 조사	서술격 조사	이다/다	3.82	13
접속 조사		와/과(접속 조사)	3.73	23
접속 조사		이며/며	3.73	23
접속 조사		이랑/랑(접속 조사)	3.73	23
보조사		이나마/나마	3.64	26
보조사		조차	3.64	26
보조사		은/는	3.64	26
보조사		도	3.64	26
보조사		이라도/라도	3.64	26
보조사		마저	3.64	26
보조사		들	3.64	26
보조사		이나/나(보조사)	3.64	26
보조사		이야말로/야말로	3.64	26
보조사		이야/야	3.64	26
보조사		으로/로	3.64	26
보조사		이든지/든지	3.64	26
보조사		대로	3.64	26
격 조사	호격 조사	아/야	3.55	39
격 조사	부사격 조사	와/과(부사격 조사)	3.55	39
격 조사	부사격 조사	이랑/랑(부사격 조사)	3.55	39
격 조사	부사격 조사	이라(고)/라(고)	3.55	39
접속 조사		이나/나(접속 조사)	3.45	43
격 조사	부사격 조사	보다	3.45	43
평균			3.78	

<표 3>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대상 조사 44개 단어성 점수의 평균은 3.78점에 해당한다. 그런데 <표 4>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동일한 점수를 받은 것은 적지 않지만 어떤 것도 3점 미만에 해당하는 것은 없다는 데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상 조사 모두가 접사성보다 단어성의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수 상위에 제시되어 있는 조사들의 대부분이나 점수 하위에 제시되어 있는 조사들의 대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특정한 부류의 조사들이 다른 부류의 조사들보다 점수가 압도적으로 높다거나 압도적으로 낮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 소부류를 보면 격 조사 가운데 부사격 조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위에 있는 것들도 적지 않고 상대적으

로 하위에 있는 것들도 적지 않은 사실이 이를 대변한다. 이는 판별 기준 가운데는 조사 부류에 따라 서로 상보적인 것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령 문법격 조사들은 분포의 자유성에서 보조사들에 비해 점수가 상대적으로 뒤지지만 비실현과 관련하여서는 문법격 조사들이 보조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아 서로 보완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포의 자유성에서 보조사들에 대해 점수가 낮으면서 비실현과 관련해서도 점수가 낮은 일군의 부사격 조사들은 그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조사들의 점수를 <표 3>의 조사 부류를 반영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표 5> 한국어 조사의 부류별 단어성 점수

대부류	소부류	목록	단어성 점수
격 조사	주격 조사	이/가(주격 조사)	3.82
		께서	3.91
		에서(주격 조사)	3.82
	주격 조사 평균		3.85
	서술격 조사	이다/다	3.82
	목적격 조사	을/를	3.82
	보격 조사	이/가(보격 조사)	3.82
	관형격 조사	의	4.18
	부사격 조사	에	4.00
		에서(부사격 조사)	4.00
		으로/로	3.64
		와/과(부사격 조사)	3.55
		하고(부사격 조사)	3.91
		이랑/랑(부사격 조사)	3.55
		보다	3.45
		에게	4.00
		한테	4.00
		처럼	3.82
		이라(고)/라(고)	3.55
		고	4.09
	부사격 조사 평균		3.80
	호격 조사	아/야	3.55
격 조사 평균			3.82
접속 조사		와/과(접속 조사)	3.73
		하고(접속 조사)	4.09

		이나/나(접속 조사)	3.45
		이랑/랑(접속 조사)	3.73
		이며/며	3.73
접속 조사 평균			3.75
보조사		은/는	3.64
		도	3.64
		만	3.82
		까지	4.18
		부터	3.82
		마저	3.64
		조차	3.64
		이나/나(보조사)	3.64
		이나마/나마	3.64
		이라도/라도	3.64
		이야/야	3.64
		이야말로/야말로	3.64
		이든지/든지	3.64
		요	4.18
		들	3.64
		같이	3.82
		대로	3.64
		뿐	4.00
		만큼	3.82
보조사 평균			3.75

<표 5>를 보면 먼저 대부류 가운데는 격 조사의 평균이 3.82점으로 가장 높다. 접속 조사와 보조사는 각각 평균이 3.75점으로 같지만 표준 편차에서 차이가 있다. 접속 조사는 표준 편차가 0.23점이고 보조사는 0.18점이므로 접속 조사 상호 간의 점수 편차가 더 크다. 이는 접속 조사 5개의 상호 편차가 보조사 19개의 상호 편차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이때 접속 조사 상호 간의 편차를 가져오는 것은 4.09점의 ‘하고’와 3.45점의 ‘이나/나’ 때문이다. ‘하고’는 선행 요소의 이형태를 유발하지만 그 자체로는 이형태를 가지지 않고 비실현이 어느 정도 가능한 데 비해 ‘이나/나’는 선행 요소의 이형태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그 자체로는 이형태를 가지며 비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러한 편차를 가져온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소부류는 격 조사에만 해당되는데 격 조사 가운데는 관형격 조사 ‘의’가 4.18점으로 단어성 점수가 가장 높고 주격 조사가 3.85점으로 그 다음이다. 서술격 조사, 목적격 조사, 보격 조사가 각각 3.82점으로 점수가 같고 부사격 조사는 3.80점



으로 그 다음이며 격 조사 가운데는 호격 조사가 3.55점으로 가장 낮다. 이는 같은 격 조사라도 관형격 조사 ‘의’처럼 선행 요소의 이형태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그 자체로는 이형태를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실현도 가능한 경우 점수가 높은 대신 호격 조사 ‘아/야’처럼 선행 요소의 이형태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그 자체로는 이형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실현에도 그 나름대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sup>19)</sup>

주격 조사 3개의 경우 표준 편차가 0.05점으로 매우 작은 데 비해 부사격 조사 12개의 경우 표준 편차는 0.23점으로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다. 단어성 점수로는 0.05점 차이로 그리 크지 않지만 표준 편차로는 0.18점 차이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만큼 부사격 조사는 개별적으로 판별 기준에 따라 점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표 3>에서 형태는 같지만 기능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것으로 처리한 조사들에 대해 따로 관심을 기울여 보기로 한다.

<표 6> 형태는 같지만 기능이 다른 조사들의 단어성 점수

목록	기능	단어성 점수
이/가	주격 조사	3.82
	보격 조사	3.82
‘이/가’ 평균		3.82
에서	주격 조사	3.82
	부사격 조사	4.00
‘에서’ 평균		3.82
와/과	부사격 조사	3.55
	접속 조사	3.73
‘와/과’ 평균		3.64
하고	부사격 조사	3.91
	접속 조사	4.09
‘하고’ 평균		4.00
이랑/랑	부사격 조사	3.55

19) 그러나 호격 조사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실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실현이 별다른 의미 차이 없이 언제나 가능하다고 본다면 단어성 점수가 3.82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비실현이 보조사와 마찬가지로 의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본다면 3.45점까지도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의 경우라면 표준 편차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게 될 것이고 뒤의 경우라면 표준 편차가 지금보다 더 커지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3점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호격 조사의 단어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접속 조사	3.73
‘이랑/랑’ 평균		3.64
이나/나	접속 조사	3.45
	보조사	3.64
‘이나/나’ 평균		3.55

우선 <표 6>의 경우에서 주격 조사와 보격 조사로 쓰이는 ‘이/가’의 경우를 제외하면 형태는 같지만 기능이 다른 조사들은 점수가 서로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전술해 온 바와 같이 형태보다 기능이 조사의 단어성에 더 큰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리고 격 조사 가운데는 주격 조사보다 부사격 조사의 점수가 더 높고 격 조사와 접속 조사의 사이에서는 접속 조사가, 접속 조사와 보조사 사이에서는 보조사가 점수가 더 높다는 경향성이 드러난다. 이는 앞의 경우에서 격 조사가 단어성 점수가 가장 높고 접속 조사와 보조사의 단어성 점수는 그보다 낮은 것과는 반대의 결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조사의 하위 부류 차이가 아니라 해당 조사의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3.3.2. 판별 기준 중심 결과 분석

이번에는 <표 3>에 제시된 결과를, 판별 기준의 측면에서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보기로 한다. 먼저 판별 기준의 단어성 점수가 높은 것부터 차례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판별 기준별 단어성 점수

판별 기준		단어성 점수
통사론적 기준	(1사)	5.00
통사론적 기준	(1아)	5.00
의미론적 기준	(1카)	5.00
형태론적 기준	(1라)	5.00
형태론적 기준	(1마)	5.00
음운론적 기준	(1다)	4.73
통사론적 기준	(1차)	4.43
음운론적 기준	(1나)	2.55
형태론적 기준	(1바)	1.95
통사론적 기준	(1자)	1.91
음운론적 기준	(1가)	1.00

<표 7>을 보면 전체 11개 기준 가운데 접사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3점 이하인 것은 음운론적 기준인 (1가, 나), 형태론적 기준 (1바), 통사론적 기준 (1자)의 4개에 해당한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들은 모두 4점을 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태론적 기준 (1라, 마), 통사론적 기준 (1사, 아), 의미론적 기준 (1카)는 모두 5점 만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음운론적 기준 가운데는 5점에 해당하는 것은 없는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 1점에 해당하는 것은, 자립성을 문제 삼는 음운론적 기준인 (1가)에 한정된다는 사실도 아울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음운론적 기준 (1나, 다)는 이형태와 관련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선행 요소의 이형태 유발 가능성을 문제 삼는 (1다)의 경우 음운론적 기준 가운데는 통사론적 기준 (1차)보다 점수가 높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이는 그 자체로 이형태를 가지는 (1나)와 관련해서는 단어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실과 상관성을 갖는다. 한국어의 조사와 관련된 이형태는 특히 자음으로 시작하는 것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일이 지배적인데 이는 스스로 이형태를 가짐으로써 그만큼 선행 요소가 이형태를 가질 가능성을 줄여 준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20)</sup>

형태론적 기준 (1바)는 결합 순서와 관련되는데 학교 문법 체계에 따른 한국어의 조사 분류 가운데 격 조사와 접속 조사는 상대적으로 보다 문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보조사는 상대적으로 보다 의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합 순서도 이와 관련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문법적인 것은 결합 순서도 비교적 고정되어 있고 의미적인 것은 결합 순서가 비교적 덜 고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조사 가운데는 격 조사와 접속 조사를 합해도 25개이고 보조사는 19개 이므로 결과적으로 단어성 점수가 다른 판별 조건에 비해 낮게 나온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비실현과 관련된 통사론적 기준 (1자)도 이러한 형태론적 기준 (1바)와 어느 정도 상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격 조사는 문법적 기능이 투명한 경우 비실현이 가능하지만 격 조사라고 하더라도 의미적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부사격 조사는 비실현이 어려

20) 이러한 점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나모와’, ‘남곤’처럼 체언도 이형태를 가지는 일이 많았던 중세 국어와의 비교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의 존재 등으로 조사 자체의 이형태의 수도 현대 국어보다 많았지만 결합하는 조사에 따라 체언 가운데도 이형태를 가지는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판별 기준 (1다)에서 5점이 아니라 1점을 받는 것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적어도 이형태와 관련해서는 중세 국어보다 현대 국어에서 조사의 단어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조사의 단어성과 관련하여 체언의 이형태 존재 여부를 바라본 적은 없었던 듯하다.

운 경우가 있고 보조사는 의미적 기능이 주된 것이므로 그 자체로 비실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접속 조사는 결합 순서는 고정되어 있지만 문법적 기능이 투명하기 때문에 비실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조사들은 이들 가운데 비실현이 불가능한 것들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표 7>과 관련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음운론적 기준의 단어성 점수는 가장 낮고 차례로 형태론적 기준, 통사론적 기준, 의미론적 기준 순으로 단어성 점수가 높아질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판별 기준을 이들 4개의 부류로 묶어 그 점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판별 기준의 부류별 단어성 점수

판별 기준		단어성 점수
음운론적 기준	(1가)	1.00
음운론적 기준	(1나)	2.55
음운론적 기준	(1다)	4.73
음운론적 기준 평균		2.76
형태론적 기준	(1라)	5.00
형태론적 기준	(1마)	5.00
형태론적 기준	(1바)	1.95
형태론적 기준 평균		3.98
통사론적 기준	(1사)	5.00
통사론적 기준	(1아)	5.00
통사론적 기준	(1자)	1.91
통사론적 기준	(1차)	4.43
통사론적 기준 평균		4.09
의미론적 기준	(1카)	5.00

<표 8>을 보면 음운론적 기준들의 단어성 평균 점수만 3점 이하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어의 조사는 음운론적인 측면에서 의존성을 가질 뿐 기타 형태론적 측면, 통사론적 측면, 의미론적인 측면에서는 단어의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을 충분히 포착하고도 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는 한국어의 조사를 음운론적인 측면에 근거하여 접사로 간주하는 것보다 형태론적 측면, 통사론적인 측면, 의미론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단어로 간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sup>21)</sup>

#### 4.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어 조사 44개를 대상으로 유형론적 관점에서 마련된 판별 기준에 따라 단어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이들 조사들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할 때 평균 점수가 3.78점에 해당하고, 접사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는 3점 이하인 것은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모두 접사성보다 단어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의 조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통사적 접사’, ‘접어’ 등으로 간주되면서 한편으로는 통사적 요소라는 사실이 인정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음운론적 의존성에 주안점을 두어 단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데 주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고의 논의를 통해 이는 음운론적 단어와 통사론적 단어가 대체로 일치하는 굴절어 중심의 논의일 뿐 통사론적 단어가 음운론적 자립성을 가지지 못하는 한국어와 같은 교착어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국내의 논의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음운론적 단어와 통사론적 단어로 단어 개념을 해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조사의 단어성을 소극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면 본고의 논의는 한국어의 조사가 의존적이기는 하지만 단어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최형용(2021, 2022)의 논의를 객관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조사의 단어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전통 문법에서 조사와 어미에 대한 분석적 견해, 절충적 견해, 종합적 견해 가운데 우선은 조사와 어미에 단어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종합적 견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시에 조사에 단어의 자격을 부여한 분석적 견해, 절충적 견해 두 가지는 일단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본고에서 ‘유형론적’이라는 이름을 단 것은 직접적으로는 한국어 조사의 단어성 판단을 위한 판별 기준이 유형론적 검토를 통해 제시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 조사가 유형론적 측면에서 단어성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른 언어들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문법 요소들과

21) 익명의 심사위원의 견해처럼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준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가중치를 부여하는 데 대한 타당성 검증이 별도로 필요하고 또 그에 따라 단어성 점수가 바뀔 가능성은 있으나 조사의 단어성이 부정될 만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우선 가중치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음을 밝히고자 한다.

의, 그야말로 ‘유형론적’ 비교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서 한국어 조사에 대한 유형론적 검토 작업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라는 점에 이의가 없지만 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한국어의 어미에 대해서도 본고의 판별 기준을 적용해 그 단어성을 검토해 보고 조사의 단어성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전통적인 분석적 견해와 절충적 견해 가운데 어느 것이 최종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역시 실증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것으로 예상된다.

## 참 고 논 제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2』(용법 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한샘(2005),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 국립국어원.  
 남기삼·고영근·유현경·최형용(2019), 『표준국어문법론』(전면개정판), 한국문화사.  
 이익섭(1994), 『사회언어학』, 민음사.  
 최형용(2013), 『한국어 형태론의 유형론』, 박이정.  
 최형용(2016), 『한국어 형태론』, 역락.  
 최형용(2021), 「한국어의 조사와 어미는 접어인가-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조사와 어미의 범주」, 『국어학』 101, 319-382.  
 최형용(2022),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접사-한국어의 조사와 어미는 접사인가」, 『한국어학』 97, 1-63.  
 Plungian, V. A.(2001), “Agglutination and flection”, in Haspelmath, M., König, E., Oesterreicher, W. & W. Raible(eds.), *Language Typology and Language Universals*,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669-678.  
 Spencer, A. & A. R. Luis(2012), *Clitics: an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Vance, T. J.(1987), *An Introduction to Japanese Phonolog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Vance, T. J.(1993), “Are Japanese Particles Clitics?”, *The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Teachers of Japanese* 27-1, 3-33.  
 Zwicky, A. M.(1985), “Clitics and Particles”, *Language* 61-2, 283-305.  
 Zwicky, A. M.(1994), “What is a clitic?”, in Nevis, J. A., Joseph, B. D., Wanner, D. & Zwicky, A. M.(eds.), *Clitics: A Comprehensive Bibliography 1892-1991*, Amsterdam: John Benjamins, xii-xx.

Zwicky, A. M. & Pullum, G. K.(1983), "Cliticization vs. inflection: English n't", *Language* 59, 502-513.

**Choi, Hyung-yong. 2024. On the wordhood of *Josa* of Korean in a typological perspective, *Morphology* 26.1, 18-40.**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easure the wordhood of Korean *Josa* based on the typological research established in Choi(2021, 2022). As noted, there have been some views that consider Korean *Josa* as 'syntactic affixes' or 'clitics'. What they have in common is that Korean *Josa* have phonological dependencies, but syntactically function as words. In this paper, I examined 44 Korean *Josa* on a 5-point scale according to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affixes and words proposed by Choi(2022), and found that the average score was 3.78, indicating a high degree of wordhood. The highest score is 4.18 and the lowest score is 3.45, so it is very important to note that none of them appears to be closer to affixes than words. Focusing on each *Josa*, using the school grammar system's classification of *Josa*, I could see that the average score is higher for 'case marking' than for 'conjunctive' or 'adding special meaning', but the difference is very small and negligible. In terms of criteria, I categorized them into semantic, syntactic, morphological, and phonological ones, and the scores decreased in this order. Only in the phonological criteria, affixhood scores are higher than wordhood score, which are due to the dependent nature of Korean *Josa*. The above results are sufficient to empirically prove that Korean *Josa* can be considered as words in a typological perspective.

Key words: *Josa*, wordhood, syntactic affixes, clitics, typological criteria, affixhood

최형용(崔炯龍)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2024. 04. 15. 원고 받고, 2024. 04. 30. 심사하여, 2024. 05. 09. 실기로 함.)